

— Sun-179 —

장천공이 합병된 비장티푸스성 D군 살모넬라 창자열 1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내과*, 일반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일산백병원 내과§, 국립보건원 장내세균과¶
김의석*, 이재승*, 홍성우*, 김석호**, 이혜란§, 신보문‡, 고행일*

창자열(enteric fever)은 발열, 두통, 복통, 상대적 서맥, 비장 비대, 백혈구감소증 등을 보이는 급성 질환이다. 창자열을 일으키는 병원체로는 *Salmonella typhi*가 대표적이며 *S. paratyphi A*, *S. schottmuelleri*, *S. hirschfeldii* 등은 중상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창자열을 일으킬 수 있다. 장천공은 살모넬라에 감염된 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3-4주가 지나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3-10%의 환자에게 발생한다.

저자들은 비장티푸스성 D군 살모넬라(nontyphoidal Group D *Salmonella* spp.)에 의한 창자열에 동반된 장천공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28세 남자가 1개월 전부터 지속된 발열과 두통으로 입원하였다. 특별한 질환을 앓은 적은 없었고 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었다. 전신쇠약감, 피로감, 오심, 호흡곤란, 우상복부 불편감, 수양성 설사를 호소하였다. 결막은 창백하였고 간이 3황지 만져졌으며 암통이 있었다. 혈압 100/60mmHg, 맥박수 88회/분, 호흡수 22회/분, 체온 38.9°C였다. 임상적으로 장티푸스를 의심하고 혈액 및 대변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ciprofloxacin을 투여하였다. 혈액배양검사에서 비장티푸스성 D군 살모넬라종이 동정되었다. 5병일 째에도 열은 지속되었고 혈변이 발생하였다. 6병일 째 갑자기 심한 복통이 생기고 암통 및 반발통이 관찰되었다. 창자열에 의한 장천공으로 진단하고 응급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회맹판 상방 3cm, 15cm, 28cm 부위에 천공이 있었고 간 및 비장종대, 장간막 림프절 병증이 관찰되었다. 절제한 병변에서 말단 회장부의 Peyer반을 따라 미란과 궤양이 있었고 대식세포의 침윤 및 육아종이 관찰되었다. 수술 후에도 발열 및 혈변이 지속되어 16병일 째에 우반대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발열 및 혈변이 소실되고 전신상태가 회복되어서 퇴원하였다.

— Sun-180 —

전립선 흡입 생검으로 확진된 뇌, 척추, 전립선 전이를 동반한 속립성 결핵 1례

부산의료원 내과

김철홍, 김경욱, 박재홍, 이민재, 장성원, 김진만, 김봉갑
양윤식, 이성주

국내 결핵 유병률은 1995년 1.0%로 감소하였고 폐외 결핵은 국내에서 9.13%로 보고된 통계가 있다. 폐외 결핵은 흥미암, 림프절암, 수막암, 장 결핵 등 다양한 장기의 침범이 가능하나, 본원에서 속립성 결핵에 동반되어 뇌 결핵종, 결핵성 척추증, 전립선 결핵성 낭종을 동시에 나타낸례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3세 남자환자가 약 한달 전부터 발생한 두통, 하배통과 배뇨곤란을 주소로하여 본원 내과를 내원하였다. 문진 상 결핵의 과거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혈압은 138/89, 맥박 90회, 호흡수 20회, 체온은 37.4°C였다. 이학적 검사 상 하배부의 암통 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었다. 혈액검사 상 백혈구 6220/mm³, 혈색소 12.1g/dL, 혈소판 353,000/mm³이고, 생화학적 검사상 AST 30u/L, ALT 21u/L, BUN 21.9mg/dL Cr 0.9mg/dL, Na 135mmole/L, K 4.3mmole/L였다. Anti-HIV는 음성이었다.

단순 흉부 촬영 상 다발성의 소결절이 양측 폐야에 관찰되고, 뇌자기 공명 촬영 상 양측성으로 천막상하에 다발성의 최고 1cm크기의 환상과 점상의 육아종성 병변 관찰되고, 척추 자기 공명 촬영 상 제 1,2 요추체부 상에 낭종성과 괴사성의 병변 관찰되어 객담, 뇌척수액과 소변 검사에서 결핵 도말검사, 결핵 PCR 검사, 결핵 배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배뇨장애로 전립선 비대 의심되어 실시한 복부 초음파상 전립선에 직경 2cm크기의 음영 중가상 관찰되어 전립선 생검을 실시하였고, 결핵 도말검사와 결핵 배양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어 항결핵 오법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주소 모두 호전 보이며 현재 외래 추적 관찰중이다.